

# 운동 않고 비만 전국 최고 적신희 커진 지역민 건강

### 질병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광주, 중강도 신체활동 전국 최하위 일반담배 흡연율은 매년 감소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건강에 적신희가 커졌다. 광주지역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지역은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22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제주가 33.0%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23.0%로 가장 낮았다.

올해 조사는 전국 258개 보건소를 통해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20분 이상 주 3일, 혹은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격렬한 신체활동을 말한다.

전남 지역은 28.0%로 인천과 같이 전국 7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해 21.2%로 전국 꼴찌였지만,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체질량지수 BMI 25 이상인 비만율은 전남이 36.8%로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 비만율은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세(2020년 34.4%→2021년 32.3%→2022년 33.8%→2023년 34.0%)를 보였다.

광주지역 비만율은 32.2%로 전국에서 12번째로 높았다.

비만율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노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체중 조절 시도율은 경북(62.1%), 전북

(60.3%)보다는 높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63.9%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흡연율과 월간 음주율이 높지는 않았다. 광주지역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해 16.7%로 전국 15위(전남은 19.3%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광주에서 20.5%로 일반 담배 흡연율과 같이 전국 15위였고, 전남은 21.6%로 전국 10위였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전남이 55.9%로 전국에서 전북(53.5) 다음으로 낮았다. 광주는 59.5%로 9위를 차지했다.

다만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음주율은 전남이 13.8로 경남·제주·울산과 함께 공동으로 전국 3위에 올랐다.

일상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광주가 7위인 반면 전남은 15위로 낮았다.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느끼는 우울감 경험률은 광주와 전남이 5.0%로 공동으로 전국 15위를 기록했다.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광주가 1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전남이 97.2%로 가장 높았다.

지역미 질병청장은 "올해 조사에서 일반 담배 흡연이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등 다른 형태의 흡연이 소폭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는 건강지표 변화 추이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천 자료는 정책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를 거쳐 내년 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제주 4·3사건 희생자 70여년만에 명예 회복

### 광주지법 재심서 무죄 선고

제주 4·3사건 희생자가 7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재판부를 돌고 돌아 재심신청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49년 제주 4·3 사건 당시 신원 불상의 남로당원들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A씨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고문 후유증으로 2017년 숨졌다.

A씨 자신은 물론 유족이 4·3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아 A씨는 4·3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족은 2022년 10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제주지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A씨의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항고했다. 또 검찰은 제주4·3특별법(14조)에 따라 4·3희생자가 아니면 공판과 변론, 무죄 선고가 한 번에 이뤄지는 '특별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광주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불복했다. 결국 A씨의 재심은 제주지법→광주고법 제주부→대법원→광주지법 이송→광주고법→광주지법으로 2년간 돌고 돌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족이 지난해 4·3 사건 8차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금남로 성탄 분위기 물씬 2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도심 가로수에 빛조형물이 설치돼 성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교육부, 서영대 운영 서강학원 이사진 전원 해임 결정

### 자녀 부정채용 등 감사서 적발

교육부가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 김모 총장은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영대는 교직원으로 총장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의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하기도 했다.

김 총장의 딸인 A씨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는데, 서영대는 이를 산업계 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미달자인 A씨를 조교수로 채용했다.

또 서영대는 명확한 기준 없이 A씨에 대한 연봉

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총장의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1788만 9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영대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재직 20년 이상'에서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부터 서영대와 서강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준안 연내 확정 백지화

### 교육부 관련단체 이견 조율 집중

정부가 '교육 개혁'의 한 축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속도 조절에 나섰다.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연말까지 확정하려 했던 기존 계획을 접고 당분간 관련 단체들과의 '이견 조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설립·운영 기준안은 향후 제정해야 할 유보통합법의 뼈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

이라 지금 당장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관계 단체들의 요구나 제안 사항을 추가로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17일 2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단체들이 공청회 행사장 앞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반대 시위'를 하자 공청회 개최를 잇달아 취소했다.

반대 단체들은 해당 공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기준 시안이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졌다고 공청회 개최를 막았다.

교육부의 정책의례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공청회에서 유보통합 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천제로 선발하고,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영유아 교육 자격을 '4년제 영유아교육과' 졸업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교육부 안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통합기관 기준안의 연말 확정은 무산됐지만 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겠다는 기준 로드맵에는 변동이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소로 36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 단위		모집 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b>총 계</b>		<b>84</b>	<b>21</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